

한국의 서원, 문(文)으로 세운
인본(人本)의 전당

세계유산 서원 품은 도시를 가다

서원(書院)은 주자학의 이념을 배우는 조선 시대 사설 교육기관이다. 사찰과 불교, 교회와 기독교의 관계와 같다. 서원은 지방의 공립학교인 향교처럼 과거 급제나 관료 양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바로 인격의 완성에 목적을 뒀다. 서원이 심신을 수양하기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이유다. 서원에서는 지역의 유교 선현을 기리고 그들의 사상과 학문을 계승할 인재를 키웠다. 도서를 간행해 보관했고, 미풍양속을 장려하고 백성을 교화했다. 즉 조선 정치·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우리나라 서원 9곳이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이 세계유산위원회가 서원을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올린 이유다. 특히 이 9곳은 인격 완성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민했던 유학자들의 사상이 구현된 곳이다. 일본의 경제 침략, 북한의 도발, 미국의 압박,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등 각종 위기에 직면한 시기, 선현의 참된 정신이 깃든 서원을 찾아가 봤다.

글 임동근 · 사진 조보희 기자





안동 도산서원·병산서원 퇴계와 서애의 정신 깃들다

경북 안동은 ‘추로지향’(鄒魯之鄉)이라 불린다. 맹자의 출생지인 추(鄒)나라와 공자의 고향인 노(魯)나라에서 따온 말로, 바로 안동이 유학의 고향이란 뜻이다. 안동은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교의 전통이 가장 잘 이어져 오는 곳이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서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도산서원(陶山書院)과 가장 아름다운 병산서원(屏山書院) 등 두 곳이나 있다.

경북 안동 도산면에는 토계(兔溪)란 이름의 작은 개울이 있다. 개울가 비탈에는 작은 건물 세 채가 복원돼 있는데 이 중 ‘溪上書堂’(계상서당)이란 현판이 걸린 초막은 퇴계 이황(1501~1570)이 1546년 낙향해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친 곳으로 알려졌다. 퇴계는 개울의 이름에서 따온 ‘퇴계’(退溪)로 호를 삼았다고 한다. 퇴계는 계상서당이 비좁아 제자를 더는 받지 못하자 1560년 산 너머 낙동강 변에 서당을 짓고 살며 후학을

양성했다. 이 도산서당은 퇴계 사후 제자들이 세운 제향(祭享) 영역과 함께 도산서원을 이룬다. 도산서원은 1575년 사액(賜額)서원이 됐다. 사액서원은 왕으로부터 편액(扁額), 서적, 토지, 노비 등을 받으며 그 권위를 인정받은 곳을 말한다. 도산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중 유일하게 제향자가 직접 짓고 생활한 곳이다.

- 1 도산서원 맞은편 축대 위에 서 있는 시사단
- 2 ‘추로지향’이 새겨진 비석
- 3, 4 도산서당 식수로 사용한 우물
- 5 소박한 모습의 도산서당



2



3



4



5

추로지향의 성인을 찾아가는 길
도산서원으로 향하는 길 한쪽에 ‘鄒魯之鄉’(추로지향)이 새겨진 비석이 놓여 있다. 공자의 77대 종손이 1981년 도산서원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 세운 것으로, 공자와 맹자 같은 성인(聖人)이 사는 고장이란 뜻을 담고 있다. 오른쪽으로 초록빛 들녘을 배경으로 안동호로 유입하는 푸른 물줄기가 휘도는 풍광을 감상하며 조금 걸자 도산서원 앞으로 커다란 느티나무와 소나무가 그늘을 짙게 드리운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강변 그늘에 강줄기를 향해 놓인 벤치에는 햇살과 더위를 피해 찾아든 방문객들이 시원스러운 풍경을 마주하며 여유를 즐긴다. 벤치 양옆으로 절벽이 강을 향해 돌출해 있다. 동쪽은 천연대(天淵臺), 서쪽은 운영대(雲影臺)라고 부르는데, 천연대는 시경(詩經)의 ‘솔개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노네’[鸛飛戾天(연비려천) 魚躍于淵(어약우연)]에서, 운영대는 주자의 관서유감(觀書有感) 중 ‘빛과 구름 그림자 함께 돌고 돈다’[天光雲影共徘徊(천광운영공배회)]라는 구절에서 인용했다. 강 건너 둥그런 축대 위에는 시사단(試士壇)이란 이름의 비각이 하나 서 있다. 정조는 1792년 퇴계를 추모해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고, 송림에서 과거를 열었는데 응시자가 7천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 비각은 바로 이를 기념해 세운 것이다. 옛 건물과 비는 1974년 안동댐이 건설될 때 지상 10m 높이로 쌓아 올린 축대 위로 옮겨졌다. 도산서원 입구 바로 옆에는 ‘冽井’(열정)이라 새겨진 우물이 있다. 세월의 때가 덕지덕지한 우물은 도산서당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아직도 맑은 물이 담겨 있다. 열정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내듯 부단한 노력으로 심신을 수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다.

소박한 공간에 담긴 퇴계의 마음
서원은 일반적으로 경사면에 들어선다. 전체적으로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은 전저후고(前低後高)의 형태를 띤다. 또 제향 공간은 뒤쪽에, 강학 공간은 앞쪽에 배치된다(前學後廟). 도산서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도산서원은 퇴계가 지은 서당 영역이 맨 앞쪽에 있고, 사후에 세워진 강학과 제향을 위한 건물이 뒤쪽에 배치돼 있다. 정문을 들어서면 정면으로 서원의 중심 건물인 전교당(典敎堂, 보물 제210호)을 향해 계단이 곧게 이어진다. 정문 바로 오른쪽엔 도산서당이, 왼쪽엔 기숙사인 농운정사(隴雲精舍)가 자리한다.



- 1 제자들이 거처하며 공부한 농운정사
- 2 전교당으로 이어지는 계단
- 3 퇴계 친필 현판이 걸린 광명실
- 4 퇴계 종택

도산서당의 사립문은 유정문(幽貞門). 은둔하면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속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서당 마당에는 연꽃을 심은 작은 연못인 정우당(淨友塘)이 있다. 퇴계는 진흥탕에 살면서도 몸을 더럽히지 않는 연꽃을 꽃 중의 군자라고 했다. 서당 건물은 3칸으로 검소하고 소박하다. 오른쪽에 대청인 암서헌(巖西軒), 중앙에 침소인 완락재(玩樂齋), 맨 왼쪽에 부엌이 있다. 하지만 3칸 집으로 보기는 어렵다. 완락재는 반 칸 정도 크고, 암서헌은 1칸 정도를 늘려 지붕까지 달았다. 공간의 쓰임새에 따라 크기를 달리 설계했기 때문이다.

완락재는 퇴계의 침소이자 독서 공간이다. 한 사람이 겨우 몸을 누일 정도로 비좁다. 퇴계는 부엌 쪽으로 공간을 내어 서가를 마련하고 책 1천여 권을 놓아두었는데 서가 앞에서 잠을 자거나 서가를 등지고 앉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했다고 한다.

제자들이 거처하며 공부한 농운정사는 도산서당 건축 이듬해 세워졌다. 퇴계는 제자들이 공부에 열중하기를 권장하는 뜻에서 '工'(공) 자 모양으로 건축했다. 8칸 규모 건물은 정면에서 보면 완벽한 대칭을 이룬다. 중앙에 유생들이 잠을 자고 책을 읽던 4칸의 지숙료(止宿寮)를 중심으로 동쪽에 공부하는 마루인 시습재(時習齋), 서쪽에 휴식하던 마루인 관란헌(觀瀾軒)을 뒀다. 도산서당 영역에서 계단을 올라 진도문을 들어서면 좌·우측에 책을 보관하는 광명실(光明室)이 자리한다. 습해를 방지하기 위해 누각 식으로 지었는데, 광명은 '많은 책이 서광을 비춘다'는 뜻이다. 현판은 퇴계의 친필이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면 정면에 전교당이 있고, 좌우로 유생들이 거처하며 공부하는 홍의재(弘毅齋)와 박약재(博約齋)가 마주 본다. 홍의는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야 한다', 박약은 '학문은 넓게 하고 행동은 예의에 맞게 단속한다'는 뜻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전교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 건물로, 한석봉이 쓴 '도산서원' 현판이 걸려 있지만 아쉽게 복원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볼 수 없다. 퇴계의 학덕을 기리는 상덕사(尙德祠, 보물 제211호)는 전교당 오른쪽 뒤편에 자리한다.

도산서원 입구에서 비탈진 도로를 오르면 퇴계가 도산서당을 지은 지 4년째인 1565년 지은 연시조인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의 비석을 볼 수 있다. 도로를 따라 고개를 넘어가면 나오는 토계리에는 퇴계종택이 자리하고 있다.





- 1 배롱나무 활짝 핀 병산서원 입구
- 2 작은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광영지
- 3 휴식과 강학의 복합공간인 만대루
- 4 서애의 위패를 모신 존덕사의 심문
- 5 주변 풍광이 훤히 펼쳐지는 만대루



풍전등화의 조선을 지킨 정치가

도산서원에서 남서쪽으로 차로 1시간 거리에는 서애 류성룡(1542~1607)을 기리는 병산서원이 있다. ‘서원 건축의 백미’로 알려졌듯 건축 답사지로 유명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건물이 하나도 없다. 이곳의 가치는 바로 자연환경과의 조화, 평범한 건물들이 이룬 공간과 구조에 있다.

병산서원을 이해하려면 우선 류성룡을 알아야 한다. 서애는 경북 의성에 있는 외가에서 태어나 이곳 하회마을과 한양에서 성장했다. 퇴계 문하에서 수학했는데, 퇴계는 “마치 빠른 수레가 길을 나선 듯 해 매우 가상하다”고 평했다고 한다.

서애는 25세에 관직을 시작해 임진왜란 때는 국난을 수습했다. 서애를 얘기하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다. 1591년 좌의정이었던 서애는 종6품 정읍현감 이순신을 무려 7계단 높은 정3품 전라도좌수사에 천거했다. 그의 천거는 적중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서애는 병조판서 겸 도체찰사로 전시 정국을 이끌었다. 왜군의 수급을 베어오면 노비를 면천했고, 대동법의 모태인 ‘작미법’(作米法)을 시행했으며, 속오군을 만들어 양반에게도 병역의무를 지웠다. 전란이 끝난 후에는 하회마을에 은거하며 임진왜란의 원인과 전황을 기록한 ‘징비록’(懲毖錄)을 썼다. 지난 일을 경계해 후환을 삼가라는 뜻이다. 이렇듯 그는 뛰어난 정치인이자 학자였다.

병산서원은 가파른 병산 절벽이 앞을 막고 낙동강 줄기가 휘도는 곳에 자리한다. 병산서원 정면에 서자 탄성이 절로 나온다. 마침 서원을 향해 열을 지어 선 배롱나무가 붉은 꽃망울을 터뜨려 화려함을 더한다. 서애는 1572년 병산서원의 모체인 풍산읍의 풍악서당을 이곳으로 옮겨왔다. 풍악서당은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1607년 재건됐다. 풍악 서당이 서원으로 바뀐 것은 1614년 서애의 위패를 모시면서부터다.

숨 멎을 듯 아름다운 자태

팔작지붕을 얹은 3칸 정문인 복례문(復禮門) 뒤로 만대루(晩對樓)의 기와지붕이 가로로 넓게 펼쳐져 있고, 그 뒤로 진초록의 화산 줄기가 떠올거린다. 복례는 논어의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에서 따온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이라는 뜻이다.

복례문을 지나면 왼편으로 광영지(光影池)란 이름의 연못이 자리한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우주관에 따라 배롱나무 그늘이 드리운 네모난 연못 속에 둥근 섬을 조성했다. 섬에는 조그만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복례문 정면으로 계단 위에는 둥근 나무 기둥 18개를 세워 올린 만대루가 펼쳐져 있다. 나무 기둥은 휘어진 모습 그대로다. 커다란 돌을 받친 기둥도 보인다. 만대는 당나라 시인 두보의 ‘백제성루’(白帝城樓) 중 ‘푸른 절벽은 오후 늦게 마주하기 좋으니’(翠屏晚對)란 구절에서 따왔다. 만대루 기둥 사이로 강학 영역이 들여다보인다.

만대루는 휴식과 강학의 복합 공간이다. 기둥 사이를 빠져나와 만대루에 오르자 넓은 누각이 시원스럽다. 기둥과 난간을 제외하고 어떤 것도 주변 경치를 가로막지 않는다. 복례문 뒤편으로 낙동강 줄기가 유유히 지나고 그 뒤로 푸른 병산이 우뚝 솟아 있다. 두보의 시처럼 해 질 녘 풍광이 무척 아름답다고 한다. 반대편으론 강학 영



역이 정갈하게 내다보인다. 유생들은 이곳에 올라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피로를 풀었다고 한다. 만대루 한쪽에는 북이 걸려 있다. 서원의 금기인 여자, 사당패, 술이 반입됐을 때 울렸다고 한다. 강학 영역을 보면 정면에 '가르침을 바로 세운다'는 입교당(立敎堂)이 있고, 커다란 매화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앞마당 좌우에서 나이 많고 학식 높은 유생이 쓴 동직재(動直齋, 동재)와 어린 유생이 사용한 정허재(靜虛齋, 서재)가 마주 보고 있다. 동직은 '거동을 바르

게 하라', 정허는 '욕심이 없으면 텅 비고 곧게 되고, 텅 비면 밝아지고 천하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뜻이다. 서재의 작은 방은 책을 보관하기 위해 온돌을 놓지 않고 마루를 깔았다. 입교당 대청마루 중앙에 앉아 앞으로 시선을 던졌다. 입교당 마루와 기둥, 만대루와 동·서재가 정갈한 마당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다. 만대루 하단 기둥 사이로 복레문이 보이고, 상단 기둥 바깥으로 는 푸른 강물이 흐른다. 가경(佳景)에 숨이 멎을 듯하다. 시선을 뒤

로 돌리자 마루 뒤쪽 문 3개가 고스란히 뒷마당의 풍경을 액자처럼 담아낸다. 안동하회마을보존회 류한옥 이사장은 "마당에 매화꽃이 피고 산에 초록빛 물이 드는 봄, 배롱나무 꽃이 피는 여름, 단풍이 흐드러지는 가을, 하얀 눈 소복이 쌓인 겨울 등 사계절 볼거리를 선사한다"며 "특히 만대루 7칸 사이로 보이는 강물과 만대루 지붕의 선, 병산의 굽이치는 능선이 어우러진 풍광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다.

입교당 뒤편 왼쪽에는 책을 찍어내는 목판을 보관하던 장판각이, 오른쪽에는 존덕사(尊德祠)가 자리한다. 존덕사로 향하는 신문(神門)은 굳게 닫혀 있다. 8괘가 불게 새겨진 기둥 뒤로 신문의 태극 문양이 선명하다. 서원 밖으로 나서는 길에 돌담을 둥글게 감아 세운 구조물이 보인다. 출입문을 달지 않아도 안의 사람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설계한 달팽이 뒹간이다. 유생들의 뒹바라지를 하던 일꾼들이 사용했다고 한다.



서애의 숨결 깃든 전통마을 하회

이제 풍산 류씨가 600여년간 가문을 이어온 곳이자 서애의 종택이 있는 하회(河回)마을을 돌아볼 차례. 고려 말 공조전서를 지낸 류중혜가 풍산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후 풍산 류씨의 마을이 됐다. 하회마을을 돌아보기 전 마을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부용대에 올랐다. 그곳에 오르자 마을의 이름처럼 강물이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풍경이 내려다보인다. 휘도는 강줄기 안쪽에 기와집과 초가가 어우러진 마을의 모습이 무척 아름답다. 부용대 아래 좌·우측에는 옥연정사(玉淵精舍)와 겸암정사(謙巖精舍)가 있다. 옥연정사는 서애가 '징비록'을 저술한 곳으로 안채, 별당채, 사랑채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강줄기와 마을의 풍경이 그윽하다. 이곳은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이용되고 있다. 겸암정사는 형인 겸암 류운룡이 머물던 곳으로, 지금은 차를 팔고 있

다. '겸암정' 현판 글씨는 이황이 직접 쓴 글씨라고 한다. 겸암정사 마루에서 바라보는 강 건너 푸른 송림이 시원스럽다. 골목길을 따라 낮고 아름다운 담장이 이어지는 마을에는 시간을 되돌린 듯한 기와집과 초가가 즐비하다. 풍산 류씨 종가이자 류운룡의 종택인 양진당, 류성룡의 종택인 충효당, 하회마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북촌택 등이 있다. 양진당은 류중혜가 입향해 가장 먼저 지은 집으로 풍산 류씨의 대종택이다. '立巖古宅'(입암고택)이란 현판이 달린 사랑채와 안채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조선 초기 건물이지만 고려 시대 건축양식의 영향을 받아 배흘림기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입암은 서애와 겸암 부친의 호다. 사랑채 뒤편에는 입암과 겸암을 모신 불천위(나라에 큰 공훈이 있거나 학문이 높아 사당에 영구히 두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신위) 사당 2개가 있다. 안채 벽면도 흥미롭다. 창문과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다. 채광, 환기, 출입 등 용도가 각기 다른 탓이다.

충효당은 “충성과 효도 이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서애의 유훈을 받들어 증손자가 당호를 붙인 곳이다. 안채를 보면 특이하게 한 옥에서는 볼 수 없는 2층 구조다. 아래층은 부엌, 위층은 공간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안

방도 2층 구조인데 위층은 길쌈을 한 공간이다. 안채는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방문했을 때 밥상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충효당 정문 바깥에는 여왕의 방문을 기념하며 심은 구상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충효당 뒤편에는 서애 관련 유물을 전시한 영모각이 있다.

임청각에서 석주 이상룡을 떠올리다

안동이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별로 없을 것 같다. 독립운동이 처음 일어난 곳이자 전국 시군 중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안동이다. 안동역 인근에는 조선 중기 건축물이자 독립운동의 산실인 임청각(臨淸閣, 보물 제182호)이 있다. 이곳은 4대가 독립운동에 나섰던 석주 이상룡(1858~1932)의 생가다. 석주 일가는 지난 3월 기준 독립유공자 11명을 배출했다.

석주는 1910년 나라를 빼앗기자 독립운동에 함께하기 위해 가산을 처분해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집단 이주했다. 당시 처분한 재산이 현재 시가로 4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망명 후에는 신흥무관학교, 경학사, 서로군정서 등을 이끌며 독립운동을 했다.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99칸 저택은 일제에 의해 절반이 잘려 나갔다. 석주는 “나라를 되찾기 전에는 내 유골을 고국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석주는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임정 묘역에 잠들어 있다. 임청각 군자정에는 독립유공자 훈장과 가계도가 전시돼 있다. 임청각 작은 전시관에선 석주와 임청각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전시물을 볼 수 있다. 임청각이란 당호는 도연명의 '귀거래사' 중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짓노라'(臨淸流而賦詩)라는 구절에서 따왔다.



1 부용대에서 내려다본 하회마을 전경
2 하회마을 양진당
3, 4 임청각 군자정과 작은 전시관



장성 필암서원

‘호남 공자’ 하서를 만나다

‘장성에서는 학문을 논하지 말라’(問不如長城)는 말이 있다. 뛰어난 학자를 많이 배출한 고장이어서 나온 말이다. 그중 한 명을 꼽으려면 단연 하서 김인후다. 필암서원은 정조가 “해동의 엄계(중국 북송 시대 성리학의 기초를 닦은 주돈이)이자 호남의 공자”라 칭했던 김인후를 제향하는 곳이다.



1 필암서원 경장각의 용머리 조각 2 홍살문과 서원의 정문이자 휴식처인 학연루
3 홍살문 옆에 있는 하마석 4 황룡면 맥동마을 도로변에 있는 필암

성균관 문묘(文廟)는 공자를 모신 사당으로 그의 제자들과 조선의 유학자 18명(동국 18현)을 함께 배향하고 있다. 동국 18현 중 유일하게 호남 인물이 있으니 바로 하서(河西) 김인후(1510~1560)다.

장성 황룡면 맥동마을은 하서가 태어난 곳. 마을 입구 도로변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서 있는데 ‘筆巖’(필암)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예부터 붓 모양 산이나 바위가 있는 곳에서는 대학자가 난다고 하는데, 이곳에 바로 붓 바위가 있다. 하서를 모신 서원의 이름도 이 바위에서 비롯했다.

어릴 때부터 문장에 뛰어났던 김인후는 31세에 문과에 급제했고 이후 세자(훗날 인종)의 스승이 됐다. 그가 설파한 유교 정치의 이상에 감동한 인종은 그 뜻을 변치 말자며 ‘묵죽도’(墨竹圖)를 그려줬다. 하지만 인종이 재위 9개월 만에 갑자 승하하자 하서는 고향에 돌아가 출사하지 않고 시와 술을 벗 삼았고 성리학 연구와 글쓰기에 몰두했다.

그의 인품은 1560년 명종실록에 실린 그의 졸기(卒記)에서 엿볼 수 있다. 실록은 “타고난 자품이 청수(淸粹)했다. 5~6세 때 문자(文字)를 이해해 말을 하면 사람을 놀라게 했고, 장성해서는 시문을 지음에 청화하고 고묘(高妙)하여 당시에 비길 만한 사람이 드물었다. 사람들은 그의 용모만 바라보고도 이미 속세의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다. 술과 시를 좋아했고, 마음이 관대해 남들과 다투지 않았으며 그가 뜻을 둔 바는 예의(禮義)와 법도를 실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감히 태만하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봉황함서의 길지에 들어서다

필암서원은 맥동마을에서 동쪽으로 차로 5분 거리에 있다. 세 차례 옮겨지며 1672년 중건된 것이다. 첫 서원은 1590년 황룡강과 문필천이 합류하는 장성읍 기산리의 무등산이 훤히 보이는 풍광 수려한 터에 세워졌다.

하지만 서원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왜(倭)에 의해 소실되고 만다. 왜는 의병의 산실이었던 이곳을 잣터미로 만들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김인후의 후손인 김경수를 중심으로 모집된 의병이 왜적을 무찔렀던 탓이다.

서원은 소실된 지 27년 만인 1624년 황룡면 증산동에 다시 건축됐고, 1662년 ‘필암’이란 편액을 받으며 사액됐다. 그러나 1671년 큰물로 모든 건물이 무너졌고 이듬해 현 위치로 옮겨 세워졌다.

임지현 해설사는 “필암서원은 봉황이 임금의 서찰이나 책을 물고 있는 형국인 봉황함서(鳳凰銜書)의 길지에 들어서 있다”고 설명했다. 봉황함서는 중국 주(周)나라 때 봉황이 천서(天書)를 입에 물고 문왕의 도읍지에 날아와 노닐어서 무왕이 그 봉서(鳳書)의 기(紀)를 받게 되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필암서원은 봉황의 머리에 해당하는 성진산 아래 평지에 들어서 있다. 신성한 장소임을 알리는 홍살문 좌우에는 말이나 가마를 타고 내릴 때 디딤돌로 사용하는 하마석이 놓여 있다.

홍살문을 지나면 서원의 정문이자 휴식처인 학연루(廓然樓)가 서



1

1 확연루에서 바라본 필암서원 2 동춘당 송준길이 쓴 청절당 현판 3, 4 단청 화려한 확연루 내부와 건물을 떠받치는 나무 기둥



5

5 경장각과 계생비 사이에 우동사 삼문이 보인다. 6 인종이 하사한 목죽도 판각이 보관된 경장각 7 난산에 있는 통곡대

있다. 층마다 문이 3개씩 달린 팔작지붕 건물로 아래층 좌·우측 문을 통해 드나든다. 가운데 신문은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낼 때만 사용한다. 높이가 낮은 문을 드나들 때는 자연스레 고개가 숙어진다. 깔끔하면서도 힘이 있는 현판 글씨는 우암 송시열이 쓴 것이다. 하서 선생의 마음이 맑고 깨끗해 확 트여 있고 크게 공정하다는 뜻이다. 확연루에서는 넓은 들판과 문필천이 보이고, 서원의 정갈한 건물들이 내려다보인다.



2

히 강화하는 곳을 행단(杏壇)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선 은행나무를 심어 청절당이 강화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단아한 '청절당' 현판 글씨는 동국 18현 중 한 명인 동춘당 송준길이 썼다.

확연루와 청절당은 모두 북쪽으로 확 트여 있고, 남쪽이 막힌 구조다. 건물들이 북쪽에 있는 사당인 우동사(祐東祠)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유생들이 공부하며 생활하던 동·서재를 지나 우동사의 내삼문 원편에는 팔작지붕에 단청이 화려한 경장각(敬藏閣)이 자리한다. 정조가 하서를 문묘에 배향하면서 세운 건물로, 초서로 쓴 편액 글씨는 정조의 친필이다. 이곳에 바로 인종이 하사한 목죽도의 판각이 보관돼

있다. 내부에는 크기가 다른 판각 2개가 놓여 있고, 액자를 씌운 목죽도가 벽에 걸려 있다. 색깔이 많이 바랬지만 소나무, 꽃 등을 그린 단청도 아직 남아 있다. 경장각 처마도리에는 여의주를 문 용과 함께 봉황이 조각돼 필암서원이 봉황합서의 길지임을 알리고 있다.

우동사 내삼문 원편에는 계생비(繫牲碑)가 서 있다.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사용할 가축을 매어 놓는 비석으로, 제관은 가축을 검사한 후 제물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계생비 뒷면에는 서원의 건립 취지와 연혁이 기록돼 있다.

계생비 뒤로 담을 쌓아 구분한 공간 중앙에 우동사가 있다. 송시열이 쓴 신도비명에 "하늘의 도움으로 동방에 태어난 이가 바로 하서 김 선생이다"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편액은 주자의 글씨를 집자한 것이다. 이곳에는 사위이자 소쇄원을 지은 양산보의 아들인 양자징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다. 우동사 동쪽에는 김인후의 글이나 목판을 보관한 장판각이 있다.

서원 정문 맞은편에는 유물전시관이 있다. 필암서원 소속 노비를 기록한 '노비보', 역대 원장의 명단을 기록한 '원장선생안', 방문자 명단인 '봉심록' 등 보물 제587호로 지정된 고문서를 비롯해 붓, 벼루, 책장, 현판 등의 유물을 볼 수 있다.

필암서원에서 서쪽으로 차로 10분 거리에는 하서가 매년 인종의 제삿날인 7월 1일에 올라 통곡했다는 난산이 있다. 하서의 행적을 기록한 난산비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하서가 그리움과 슬픔을 쏟아낸 '통곡대'란 이름의 사각 바위가 놓여 있다.



6



7



3



4



싱그러운 편백숲과 호숫가를 거닐다

필암서원 북쪽에 있는 축령산은 산림청이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곳에는 수령 50~60년의 아름드리 편백과 삼나무가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다. 삼림욕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이다. 모암주차장에서 걷기를 시작했다. 주차장 앞으로 편백림이 울창하다. 하늘을 향해 짙은 모습이 보기만 해도 시원스럽다. 숲을 통과해 조금 오르자 경사 평탄한 산책로가 물소리 소란스러운 계곡을 따라 이어진다. 계곡 쪽 길은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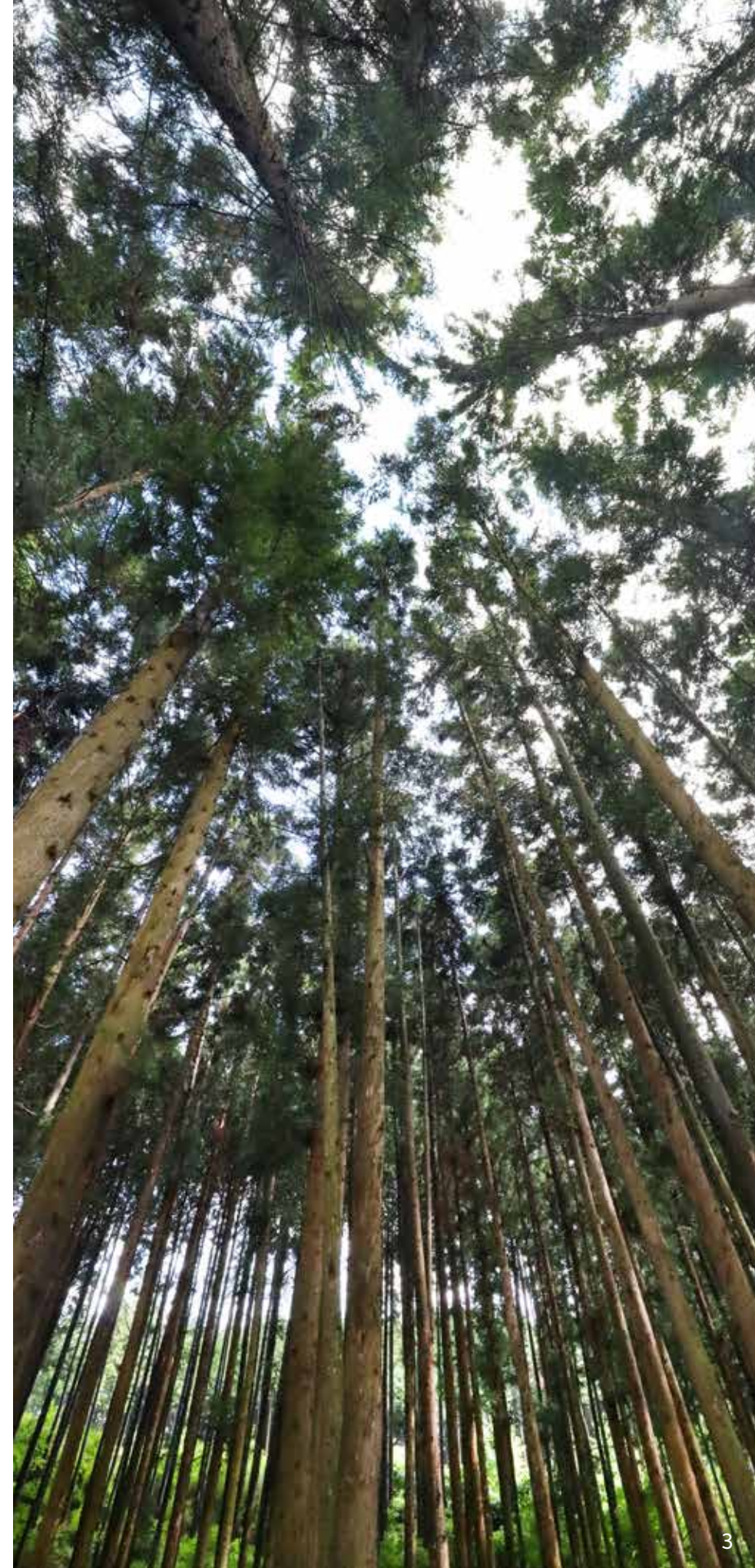
- 1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된 축령산 편백숲
- 2 장성호 수변 길에 있는 황금빛 출렁다리
- 3 늘씬한 편백이 솟아 있는 축령산

데크가 깔렸고, 그 옆으로 흙길 임도가 나란하다. 중간중간 벤치와 정자가 있어 쉬어가기도 좋다. 걷는 것만으로 가슴이 탁 트이고 마음이 치유되는 길이다.

숲내음숲길, 산소숲길, 건강숲길, 물소리숲길, 맨발숲길, 하늘숲길 등 코스도 다양하다. 아무 길이나 선택해 천천히 걸으며 삼림욕을 즐기면 된다.

축령산 편백숲은 '산림왕'으로 불린 춘원 임종국(1915~1987) 선생이 한국전쟁으로 민둥산이 된 축령산에 평생 나무를 심어 조성한 인공조림 숲이다. 한 그루, 한 그루 심은 편백과 삼나무가 반백 년이 지나 보물이 됐다. 축령산에서 20분 거리에는 총 길이 7.5km의 장성호 수변길이 있다. 장성호수변공원에서 계단을 오르면 수변 길이 시작된다. 장성호 왼쪽을 따라 조성된 수변 길은 시원스러운 호수를 바라보며 걷는 가벼운 산책길이다. 출발지에서 1.2km 지점에는 황금빛 출렁다리가 있다. 길이 154m, 폭 15m의 출렁다리 주탑은 두 마리 황룡이 마주하는 모습이다. 올해 말에 약 1km 떨어진 곳에 제2 출렁다리가 개통할 예정이다.

필암서원 인근의 박수량 백비도 한 번쯤 둘러볼 만하다. 조선 중기 문신 박수량(1491~1554)의 묘 앞에는 아무 글도 없는 백비(白碑)가 서 있다. 박수량은 명종 때 청백리에 올랐던 인물로 "시호도 주청하지 말고, 묘 앞에 비석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너무 가난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자 명종이 명해 장례를 치러줬는데 그때 상징적으로 백비를 세웠다고 한다.



논산 돈암서원

실천가 사계의 정신 담긴 공간

임진왜란 이후 성리학의 이론이 더는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다. 기강은 허물어지고 질서는 문란했다. 김장생은 기본적인 인간의 덕목을 처음부터 재정립해 예(禮)에 맞게 행동하라고 주장하며 나라를 바로잡으려 했다. 돈암서원은 성리학의 실천 이론인 예학을 우리 현실에 맞게 보급한 김장생을 기리는 공간이다.



논산 돈암서원 입덕문 사이로
강학 공간이 들여다보인다.



1 돈암서원 전경 2 홍살문 뒤로 돈암서원이 보인다. 3 서원의 정문인 입덕문

돈암서원(遯巖書院)은 충남 논산 연산면 고성산 줄기 중간쯤의 평지에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 연산천이 흐르고 전면 왼쪽에 계룡산, 우측에 대둔산을 끼고 있다.

원래 서원의 위치는 이곳에서 서쪽으로 17km 떨어진 하임리 숲말의 산기슭이었다. 사계 김장생(1548~1631)은 1602년 조선 초기의 문사 최청강이 소유한 아한정(雅閑亭)이 있던 곳에 양성당(養性堂)을 짓고 30여년간 제자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사계 사후 3년만인 1634년 그를 기리는 사계서원을 세웠고, 이곳은 1658년 사액을 받으며 돈암서원이 됐다. 돈암은 숲말 기슭에 있던 '돼지바위'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주자가 만년에 사용한 '돈옹'(豚翁)이란 호에서 빌려왔다는 주장도 있다.

김장생의 호인 사계는 양성당이 있던 숲말에서 비롯했다. 김장생은

‘양성당기’에서 “앞에는 길게 뻗어 있는 숲이 있고 숲 밖에는 맑은 시내가 흐르는데, 하얀 모래가 맑고 아름다우며 시냇물은 배가 떠다닐 정도로 깊다”며 양성당 주변 풍광을 묘사했다. 그가 표현한 풍경이 바로 사계다.

웅장한 응도당과 화려한 꽃담

외삼문 뒤로 돈암서원이 정갈하게 자리하고 있다. 가장 먼저 맞는 건물은 서원 입구 앞 중앙에 우뚝 선 산양루(山仰樓). 전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돌기둥 위에 누각이 올라서 있다. 문루에 오르면 서원이 내려다보이고, 반대편으론 넓은 들판 뒤로 산봉우리들이 흐른다. 이 누각은 2006년 고증을 거쳐 세워졌다.

숫을삼문의 입덕문(入德門)을 통과하면 전면에 강학 공간이 자리하





1

1 건축 양식이 특이한 응도당 2 응도당 대청마루 뒤로 서원 풍경이 시원스럽다.



2

고 서쪽 담벼락 쪽의 응도당(凝道堂, 보물 제 1569호)과 오른쪽에 있는 경회당(慶會堂)이 비스듬하게 마주 본다. 응도당은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당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웅장한 맞배지붕 건물로, 커다란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방이 배치돼 있다. 특이한 것은 좌·우측에 눈썹지붕이 달렸다는 점이다. 지붕 아래에는 세로 기둥과 경사 기둥을 세워 지탱하고 있다. 또 정면에서 보면 기단석과 마루 사이 공간이 비어있어 마치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하다.

돈암서원 김건중 원장은 “응도당은 한국 서원 건물 중 규모가 가장 크다”며 “우람한 기둥과 들보, 다른 서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흥미로운 구조를 갖추고 있어 건축을 공부하는 이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서원 중앙의 강학 공간은 양성당을 중심으로 동·서재가 마주 보는 ㄷ자 형태로 건물이 배치돼 있다. 양성당은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란 뜻을 담고 있다. 마당에는 서원의 건립과 구조, 김장생의 학문을 칭송하는 돈암서원 원정비가 서 있다. 송시열이 비문을 짓고 송준길이 글씨를 썼다.

강학 공간 서쪽으로는 김장생의 아버지 김계휘가 유생들을 가르쳤던 정회당과 김장생과 김계휘, 김집의 책판이 보관된 장판각이 위치한다.

장판각 뒤로 사당 영역인 숭례사(崇禮祠)가 있다. 이곳에는 김장생과 아들 김집, 송준길, 송시열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사당은 화려한 꽃담이 두르고 있다. 신문 좌우의 꽃담에는 地負海涵(지부해함, 대지가 만물을 짊어지고 바다는 만천을 포용한다), 博文約禮(박문약례, 지식은 넓히고 행동은 예의에 맞게 하라), 瑞日和風(서일화풍, 상서로운 햇살과 온화한 바람)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사계의 사상을 축약한 글이다.

돈암서원이 숲말에서 현재 위치로 이전한 것은 1880년(고종 17년)이다. 낮은 지대에 들어선 돈암서원이 홍수 때 자주 침수됐기 때문이다. 당시 사우, 외사, 내사만 옮겨졌고, 응도당과 비석은 현대에 이전됐다. 이런 이유로 사원 건물의 배치와 구조는 숲말에 있을 때와 사뭇 달라져 있다. 돈암서원에서 남쪽으로 차로 5분 거리에는 사계종택과 묘소가 있다.



3



5

3 김장생과 아들 김집, 송준길, 송시열의 위패가 모셔진 숭례사
4, 5 사계의 책판이 보관된 장판각



1 초록빛 무성한 탐정호
수변생태공원
2 계백장군유적지의
계백장군 동상
3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탐정호 수변생태공원과 계백장군유적지

돈암서원 남쪽에는 탐정호가 있다. 대둔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담긴 탐정호는 둘레 길이 24km로 충남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다. 이곳에는 수변생태공원이 조성돼 있다. 데크 탐방로를 따라가면 연잎이 가득한 풍광이 펼쳐지고, 조롱박 탐스럽게 매달린 터널을 지난다. 수변데크산책로로 접어들면 잔잔한 호수가 시원스럽게 눈 앞에 펼쳐진다. 오는 12월에는 길이 600m의 출렁다리가 들어서 새로운 명소가 떠오를 전망이다. 이곳은 특히 노을이 아름다워 출사지로도 유명하다.

수변생태공원 인근에는 계백장군유적지가 있다. 백제 5천결사대와 신라군이 최후의 일전을 벌였던 황산벌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한 곳으로 계백장군 사당과 계백장군의 묘가 있다. 이 묘는 전란이 끝난 후 백제 유민들이 장군의 시신을 거둬 매장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백제군사박물관에서는 백제의 군사 활동, 무기 등을 엿볼 수 있다.

탐정호 서쪽에는 고려 시대 사찰인 관촉사가 자리한다. 일주문과 천왕문을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사찰 경내가 펼쳐지는데, 한쪽에 높이 18m의 거대한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 제323호)이 있다. 얼굴이 커다랗게 강조된 이 석불은 흔히 '은진미륵'이라고 불리는데 1006년(고려 목종 9년) 세워졌다. 석불 앞에는 석등(보물 제232호), 연꽃 문양이 아름다운 배례석, 4층 석탑이 서 있다. ●

INFORMATION

세계문화유산 등재 서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은 모두 9곳이다. 안동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대구 도동서원,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 등이다.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릴 때 전국에 있는 서원은 1천 곳이 넘었다고 한다. 이후 서원 대부분이 사라지고 사액서원은 47곳만 남았다.

영주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제공

소수서원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다. 이곳 출신 성리학자인 안향을 배향하기 위해 사당을 건립하고 그 동쪽에 백운동서원을 세운 것이 시초다. 서원 이름을 '백운동'으로 한 것은 서원의 자리가 중국 송(宋)나라 때 주희가 다시 일으킨 백록동서원이 있던 여산(廬山)에 못지않게 구름, 산, 언덕, 강물이 골짜기에 항상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1549년 명종 때 처음 사액되며 붙은 소수(紹修)란 이름은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 닦게 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소수서원은 서원의 일반적인 배치와 달리 동학서묘다. 강학의 중심인 명륜당은 동향, 사당은 남향이다.

입장료 일반 3천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1천원 ☎ 054-639-5852

대구



문화재청 제공

도동서원

한훤당 김굉필(1454~1504)을 기리는 서원이다. 한훤당은 정몽주, 길재, 김숙자, 김종직으로 이어지는 유학의 도통을 받은 사림파의 적자(嫡子)로 일컬어진다. 갑자사화 때 순천으로 유배됐다가 사사됐다. 서원은 원래 1568년 현풍현 비슬산 기슭에 세워져 쌍계서원이라 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 자리를 옮겨 재건됐다. 1604~1605년 사당과 서원이 완공됐고, 1607년 도동서원으로 사액됐다. 도동(道東)은 성리학의 도가 동쪽에서 왔다는 뜻이다.

경주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제공

옥산서원

회재 이언적(1491~1553)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1573년(선조 6년) 창건됐다. 이언적은 주희의 주리론적 입장을 성리학의 정통으로 밝혀 성리학의 방향과 성격을 정립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경주 양동마을이 고향인 회재는 만년에 경주 안강읍 옥산 시냇가에 집을 짓고 6년간 성리학을 연구했다. 회재는 이곳과 가까운 계곡의 바위 5개 중 하나를 세심대라 불렀는데 옥산서원은 바로 이곳에 들어서 있다. 세심대는 폭포수로 마음을 씻고 자연을 벗 삼아 학문을 구하는 곳이란 뜻이 있다. ☎ 054-762-6567

정읍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제공

무성서원

통일신라 말기의 학자이자 우리나라 유학자의 호시로 꼽히는 고운 최치원(857~?)을 기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세운 사당이 시초다. 1696년(숙종 22년) 무성(武城)이란 이름으로 사액됐다. 무성은 서원이 있는 태인현의 신라 때 이름이자 공자의 제자 자유가 다스렸던 노나라 고을(현 산동성 폐이(費)현)의 지명이기도 하다. 풍광 수려한 곳에 들어선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함양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제공

남계서원

1552년 일두 정여창(1450~1504)을 기리기 위해 창건돼 1566년(명종 21년) 서원 옆에 흐르는 시내인 남계(南溪)로 사액됐다. 정유재란 때 소실된 뒤 터를 옮겨 1612년(광해군 4년) 현 위치로 옮겨 중건됐다. 일두는 김종직 문하에서 성리학을 배웠고, 무오사화 때 함경도에 유배됐다가 생을 마감했다. 뒤쪽에 제향 공간이 자리하고, 앞쪽에 강학 공간이 위치하는 서원 건축의 초기 배치 형식을 보여준다. ☎ 055-960-6114

장성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제공

필암서원

하서 김인후를 추모하기 위해 1590년 설립됐다. 정유재란 때 소실돼 1624년 복원했으며, 1662년(현종 3년) 사액됐다. 1672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다. 보물·문화재로 지정된 목판, 문서 등 조선 시대 서원 운영과 선비 교육에 관한 사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경장각에는 정조가 하사한 편액과 인조가 하사한 판각이 보관돼 있으며, 휴식처인 학연루의 현판은 우암 송시열의 글씨다. ☎ 061-394-0833

돈암서원

사계 김장생을 기리는 곳으로 1634년 건립되고, 1660년 사액됐다. 아들 김집과 제자 송준길·송시열이 배향돼 있다. 사계는 인조반정 이후 서인의 영수로 떠오르며 정치와 학문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특히 꽃담장이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졌다.

논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제공

안동



안동시 제공

도산서원

퇴계 이황이 세상을 떠난 후인 1574년 제자들이 건립했다. 퇴계가 생전 성리학을 연구하며 제자들을 가르치던 도산서당 영역과 퇴계 사후 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지은 도산서원 영역으로 이뤄져 있다. 퇴계의 인품처럼 건물들이 소박하고 검소하게 꾸며져 있다.

관람료 어른 1천5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600원 ☎ 054-856-1073

병산서원

서애 류성룡과 아들 류진을 배향한 서원이다. 고려 때 안동부 풍산현에 있던 풍악서당이 모태로 1572년 류성룡이 지금의 장소로 옮겼다. 1610년 제자 정경세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서애를 추모하기 위해 존덕사를 지으면서 서원이 됐다. 1863년(철종 14년) 사액됐다. 낙동강 변 모래사장이 바라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서원 건축물 중 최고봉으로 꼽힌다. ☎ 054-858-5929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제공